

믿음과 희망주는 고성군의의회

2025년 고성군의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대만 · 홍콩 / 2025. 9. 20.(토) ~ 9. 25.(목)]



고성군의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대만, 홍콩

2. 출장목적:

- 방문기관의 역사·문화·도시·환경 등 정책 및 의회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성군의 현안과 연계가능한 정책과제 도출

3. 출장기간: 2025. 9. 20.(토) ~ 9. 25.(목)[5박6일]

4. 보고서 작성자: 전 의원 및 전 직원

5. 출장자 인적사항: 고성군의회 의원 10명, 의회사무과 직원 6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고성군의회	의장	최을석	
2	고성군의회	부의장	우정욱	기획
3	고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최두임	기획
4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기획
5	고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산업
6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향숙	산업
7	고성군의회	의원	이쌍자	산업
8	고성군의회	의원	정영환	산업
9	고성군의회	의원	김원순	산업
10	고성군의회	의원	이정숙	기획
11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12	의회사무과	기획행정전문위원	허수은	
13	의회사무과	산업경제전문위원	조호철	
14	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	김규남	
15	의회사무과	주무관	박민지	
16	의회사무과	주무관	김석규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2025년 제2회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일 시: 2025. 11. 21.(금) 15:00

- 장 소: 고성군의회 2층 의회운영위원회실

- 심사결과: 위원 7명 중 4명 참석하여 전원 가결 및 승인

- 심사의견: [별지2] 참조

목 차

I. 출장목적	1
II. 출장개요	1
III. 출장일정	3
IV. 주요 방문 활동	
• 중정기념당	5
• 용산사	10
• 타이베이 101	13
• 라오허제 야시장	16
• 홍마오청	18
• 고궁박물관	21
• 타이베이시의회	24
• 베이더우 공공도서관	31
• 빅토리아 피크	36
• 태풍에 따른 연수활동 중단	37
V. 연수 총평	38
VI. 정책 제언	40
VII. 로드맵	42
VIII. 결론	43
IX. 의원별 연수기	
• 최을석 의장	44
• 우정욱 부의장	48
•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	52
•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	55
•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	62
• 김향숙 윤리특위위원장	65
• 이쌍자 의원	72
• 정영환 의원	74
• 김원순 의원	77
• 이정숙 의원	82

※ [별지1] 공무국외출장 예산집행 내역

※ [별지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결과




2025년도 고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I 출장목적

- 지속가능 도시전략, 시민참여 행정, 문화·관광 복합정책 등 해외 우수 사례 분석
-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고성군 적용 가능 정책 발굴 및 의회 차원의 입법·감사·예산 활동에 반영할 과제 도출

II 출장개요

- 기간: 2025. 9. 20.(토) ~ 9. 25.(목), 5박 6일
 - (대만) 중정기념당, 용산사, 홍마오청, 고궁박물관, 타이베이시의회
 - (홍콩) 빅토리아 피크 / 태풍으로 인한 안전조치(23일 오후 ~ 24일)
- 주요 방문기관

국가	기관명	기관개요	대표사진
대만	타이베이 베이터우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일: 2006. 11. ○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25선 선정 - 대만 최초 녹색 도서관 	
	타이베이시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일: 1969. 12. 25. ○ 대수: 제14대 ○ 의원정수: 61명 ○ 조직구성: 7개 상임위원회 	
	국립고궁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일: 1965. 11. 12. ○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힘 - 약 697,490여개 소장품 전시 	

○ 출장자 임무 및 역할

		의장 최을석	·국외연수 총괄 ·의원 임무수행 관리 및 지도
			부의장 우정욱
			·국외연수 일정 수립 및 조율 ·연수 참가자 안전 관리
의회운영 위원장 최두임	·타이베이시 의회 방문 협의 ·의회운영 체계 우수 방안 발굴		
산업경제 위원장 김석한	·산업경제 분야 상임 위원회 체계 연수		
기획행정 위원장 허옥희	·국제 스포츠마케팅 교류 기관 섭외 및 방문 협의	윤리특별 위원장 김향숙	·장애인 체육 복지 관련 연구 및 발굴
의원 정영환	·행정사무감사 추진 체계 발전방안 발굴	의원 이쌍자	·장애인 체육 지원 방안 연구 및 발굴
의원 이정숙	·현장 의정활동 발전 방향 발굴	의원 김원순	·스포츠마케팅 발전을 위한 우수 전략 발굴
		과장 조정제	·국외연수 추진 행정 총괄 ·직원 임무수행 관리 및 지도
기획행정 전문위원 허수은	·시의회 전문위원 운영 현황 견학 ·국제 스포츠마케팅 교류 협약 방안 논의	산업경제 전문위원 조호철	·시의회 전문위원 운영 현황 견학 ·상임위 안전 심의 체계 발전 방안 발굴
정책지원 담당 김규남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정책수립 우수사례 연수 ·정책지원관 발전 방향 발굴		
주무관 박민지	·의사일정 수립 기준 및 체계 연수 ·회의 운영 절차 및 방향 개선점 발굴	주무관 김석규	·국외연수 세부계획 수립 ·국외연수 추진 업무 전반 ·국제 스포츠마케팅 교류 협약 지원

Ⅲ 출장일정

일자	도시	시간	일정	비고
9. 20. (토)	부산	오전	○ 집결: 07:00 부산국제공항(09:00 출발) ○ 부산국제공항→대만 타이베이국제공항(약 1시간30분 소요)	출국
	타이베이	오후	○ 현지 답사: 중장기념관 용산사 101타워, 리오제야장 - 대표 문화시설 등 답사 및 벤치마킹	방문 연수
9. 21. (일)	타이베이	오전	○ 현지 답사: 단수이, 홍마오청 - 대표 시설 이용객 유치 및 운영현황 벤치마킹	방문 연수
		오후	○ 현지 답사: 국립고궁박물관 - 시계4대박물관 견학으로 박물관 운영 및 시설 개선점 벤치마킹	방문 연수
9. 22. (월)	타이베이	오전	○ 기관 방문: 타이베이시의회 - 선진 의회운영 체계 견학	기관 방문
	타이베이 ↓ 홍콩	오후	○ 기관 방문: 타이베이 베이터우 공공도서관 - 대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시설 현황 벤치마킹 ○ 집결: 17:00 타이베이 공항(19:00 출발) ○ 타이베이 공항→홍콩공항(약 1시간45분 소요)	기관 방문
9. 23. (화)	홍콩	오전	○ 현지 답사: 빅토리아 피크, 소호거리 - 대표 공원 답사 및 벤치마킹	방문 연수
		오후	라가사 태풍 경보 10호¹⁾ 발령에 따른 연수 일시 중단 (14시경부터 해제 시까지 외부활동 전면 중지 발령)	
9. 24. (수)	홍콩	-	라가사 태풍 경보 10호 발령에 따른 연수 일시 중단 (해제 시까지 외부활동 전면 중지 발령)	
9. 25. (목)	홍콩 ↓ 부산	-	○ 집결: 10:00 홍콩국제공항(12:20 출발) ○ 부산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약 4시간40분 소요) ○ 인천국제공항→부산국제공항(약 1시간 소요)	귀국

1) 홍콩 태풍 경보 중 최고 단계, 학교와 상업시설 전면 휴업 및 시민 외출 자제 권고

IV 주요 기관방문 활동

■ 대만

국명	- 대만(Taiwan) /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Taiwan)
위치	- 동아시아, 타이완 해협 및 동중국해 사이, 일본과 필리핀 사이
면적	- 약 36,193 km ² (168개 섬 포함)
기후	- 북부는 아열대, 남부는 열대 기후. 우기: 6~8월 남서 몬순. 연중 흐림 많음
인구	- 약 2,336만 명
수도	- 타이베이 (Taipei)
주요도시	- 신타이베이(New Taipei City), 타이중(Taichung), 가오슝(Kaohsiung), 타이난(Tainan)
민족	- 한족(94.5%), 대만 신주민(3.1%), 대만 원주민(2.4%)
종교	- 불교(35%), 도교(33%), 기독교(3.9%), 민간신앙(약 10%), 무종교(18%)
언어	- 공용어: 만다린(표준중국어) - 사용 언어: 민난어(Taiwanese Hokkien), 하카어, 약 16개 원주민 언어
시차	- 한국기준 -1시간
전압	- 110 V / 60Hz
화폐	- 신 대만 달러(TWD, NT\$)
건립일	- 중화민국 수립: 1912년 1월 1일 - 대만 반환 및 실효적 통치: 1945년 10월 25일 - 헌법 제정: 1947년 12월 25일
정부형태	- 단일 semi-presidential 공화국
국가원수	- 라이칭더(Lai Ching-te)
총리	- 초정타이(Cho Jung-tai)
명목 GDP	- 약 8,144억 USD
경제성장률	- 2024년 연간 약 4.3-4.84% 성장, 2025년 전망은 3.1-3.6% 사이
1인당 GDP	- 34,920 USD
실업률	- 3.3-3.5%
물가상승률	- 1.6-2.2%
산업구조	- 서비스 62%, 산업 36%, 농업 1.8%
교역규모	- 수출 약 4,750억 USD, 수입 약 3,940억 USD - 주요 수출품: 반도체, 통신장비, 평판 디스플레이 등 - 주요 수입품: 석유, 반도체 장비, 천연가스, 철강 등

9. 20.(토)

1. 국립 중정기념당

< 방문 개요 >

- ▶ 일 시: 2025. 9. 20.(토) 13:30
- ▶ 주 소: 100 대만 Taipei City, Zhongzheng District

- 국립 중정기념당은 타이완의 초대 총통이자 타이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추앙받는 장제스(蔣介石)를 기리는 기념당²⁾
- 1975년 장제스 총통이 서거 후 그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당 설립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80년 4월 5일 중정기념당 정식 개관
- 전통 건축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역사적 기념과 현대적 문화 공간이 조화롭게 결합된 구조
- 대만의 역사와 현재가 마주하는 공간으로, ‘국가의 아버지’ 를 기리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설계
- 내부의 전시관, 영상실, 역사자료실 등은 높은 교육적 가치가 지니며, 외부의 국립극장·음악당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음.
- 기념당 광장은 집회, 시위, 축제, 공연 등 다양한 시민활동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대표적인 공공장소로, ‘공공시설의 시민공유’ 라는 행정철학이 녹아 있는 시설이었음.

2)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정기념당 외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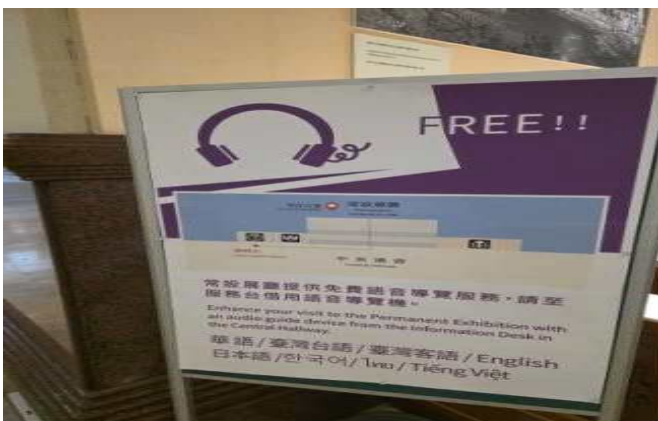
중정기념당 외부 안내도



중정기념당 내부



중정기념당 내부



다국적 언어 서비스 지원 안내



비상 안내도



디지털 방식 융합 전시



전시 구조 탐방



대만 역사에 대한 전시



대만 역사에 대한 전시



중정기념당의 소개 및 유래



다국적 언어 서비스 지원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건축양식



의장대 교대식



복합 광장

√군정 발전과 접목할 부분 또는 시사점

○ 공공문화시설의 기능 다변화와 개방성 확대

- 중정기념당은 ‘기념적 공간’ 과 ‘생활문화공간’ 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 이는 단순한 관람 위주의 문화시설이 아닌 ‘참여·교육·휴식’ 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결합·발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고성군이 보유한 송학동고분군, 당항포 등 역사·문화·관광시설도 단순한 관람시설에서 벗어나 ‘군민참여형 복합문화공간’ 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군민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군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운영·관리하는 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문화자산 운영체계 구축

- 중정기념당은 장제스의 개인 기념공간이었으나, 현재는 역사 및 교육, 관광, 공연예술, 시민활동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지속가능한 문화 자산 관리 모델’ 로 확장·전환된 사례
- 고성군도 공룡발자국 화석지, 자란도, 전통시장 등 주요 문화자산을 관광·교육·문화산업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콘텐츠 자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는 복합형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통합적인 운영체계 구축 필요

○ 군민참여 기반의 공공시설 운영체계 정립

- 중정기념당 운영의 핵심은 행정의 일방적 관리가 아니라, ‘시민위원회 중심의 협의’ 구조임. 이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요소였음.
- 고성군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민, 상공인, 문화예술인, 청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공시설 운영 군민협의체’ 를 도입함으로써, 시설의 운영방향, 이용수칙,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 군민 참여 보장 필요

○ 고성군의회 내 문화공간 조성

- 중정기념당의 문화·전시 활용사례를 참고하여 고성군의회 청사 내 벽면 공간을 활용하여 고성군 예술인들의 그림 또는 사진 작품 전시 공간을 조성하여 의회 방문객의 문화향유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과의 소통·참여 확대를 도모

○ 고성군의회 역사기록관 설치

- 고성군의회 의 변천·설립부터 현재까지의 변천 과정, 주요 입법 활동, 군민과 함께한 역사적 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전시 필요
- 의정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디지털 전시 구성을 통해 지방의회의 교육·홍보 기능을 강화
- 군민에게 개방된 공공 문화 공간으로 조성으로 군민 접근성 및 민주주의 가치 확산 도모

2. 용산사

< 방문 개요 >

- 일 시: 2025. 9. 20.(토) 15:00
- 주 소: No. 211, Guangzhou St, Wanhua District, Taipei City, 대만 10853

-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1738년 청나라 시절 처음 이주민들에 의해 세워졌으나 중간에 각종 전쟁과 침략으로 소실되고 현재의 모습은 1958년 지어진 형태
- 지붕과 돌기둥에는 용의 장식이 많아 이름에 한자 용이 들어간 가원이 되었고 불교뿐 아니라 도교의 다양한 신을 모시는 대만의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사원
-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불교·도교·유교·토속신 100여 존을 모시고 예불
- 재물신, 사랑신, 건강신(화타), 학업신 등 다양한 신들의 형상화로, 사랑신은 달콤한 음식을 제물로 놓고 좋은 인연을 기도하는 등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종교시설임에도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대표 관광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찰을 중심으로 음식점, 공예상점, 문화체험관 등이 밀집하여 복합 상권으로 발전



용산사 외관

용산사 입구



용산사 내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군정 발전과 접목할 부분 또는 시사점

○ 고성군 명소 스토리텔링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 고성군의 향토이야기·전설·종교문화 등을 AR(증강현실)·웹툰 또는 스토리북 등으로 재해석하여 관광자원화 필요
- 지역전설, 향토유적, 유적 등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을 발굴·개발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홍보에 활용
- ‘고성성당’, ‘문수암’, ‘옥천사’ 등 역사가 깊은 문화·종교시설을 활용하여 ‘마음 치유·쉼터형 명소’로 개발

○ 지역 나눔문화 확대

- 용산사에 모인 제물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기증하는 나눔 문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고성군 또한 ‘푸드뱅크’를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에 우선 제공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기부 문화 조성과 수혜자에게 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 종교·문화·경제의 융합형 관광정책 추진

- 용산사 일대는 단순한 사찰 관광지가 아니라 전통시장과 문화상권이 연계된 ‘복합문화관광지구’로 발전하였음. 이는 종교시설, 상권, 지역 경제와 함께 활성화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고성시장, 회화면 및 동해면 해안상권, 공룡엑스포 행사장 일대 등 우리군 관광 거점 지역에도 ‘전통시장·문화·관광을 결합한 복합관광지구지’ 조성 추진

3. 타이베이 101

< 방문 개요 >

- ▶ 일 시: 2025. 9. 20.(토) 18:00
- ▶ 주 소: 110 대만 Taipei City, Xinyi District, Section 5, Xinyi Rd, 7號89樓

-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더 나아가 대만 전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대만 최고층 빌딩³⁾, 지상 101층 지하 5층(508m)
-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정부는 토지·인프라·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자본투자·설계·운영을 담당)
- 건물 전체에 고효율 에너지 절감 시스템, 빗물 재활용 설비, 스마트 조명·공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영비를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성과를 통해 2009년 세계초고층건물 최초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 획득
- 강풍과 지진이 잦은 대만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풍진자(Tuned Mass Damper)를 설치하여 건물의 안전성과 내진성을 향상



에너지 절감 체계 시찰

세계 최대규모 풍진자

3) 나무위키



타이베이 101 타워

에너지 절감 체계 시찰

√ **군정 발전과 접목할 부분 또는 시사점**

○ **스마트·친환경 융복합 건축행정 추진**

- 타이베이 101의 에너지 절감(LEED 2009년 인증), 빗물 재활용 시스템, 내진 주교 등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건축 모델’ 임
- 군 청사 및 공공시설 신축·개보수 시에 태양광·빗물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고, 스마트 조명 등 에너지 절감형 공공건축 기준 도입 검토

○ **고성군 랜드마크 연계 관광상품 활성화**

- 고성의 공룡, 당항포 해안, 고성박물관, 송학동고분군 등을 활용한 캐릭터 및 기념상품 개발로 관광수익 확대

- 정부지원사업,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차별화된 캐릭터 개발로 소비자가 공감하는 캐릭터 지속 개발 추진

○ 공공·상업 복합시설 도입 필요

- 타이베이 101은 대형 쇼핑몰과 레스토랑, 문화공간이 결합된 대표적 복합 관광시설
- 고성군도 고성읍 도시재생 사업, 당항포관광지, 남포항 등을 대상으로 공공·상업 복합공간 모델 도입 검토 필요

○ 민간개발의 지역사회 환원제도 검토

- 타이베이 101은 개발사업 이익 일부를 환경보호·사회공헌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을 추진하고 있었음.
- 향후, 고성군 내 민간개발사업 추진 시 일정 비율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역기여금 제도’ 도입 검토

4. 라오허제 야시장

< 방문 개요 >

- ▶ 일 시: 2025. 9. 20.(토) 20:30
- ▶ 주 소: Raohe Street, Songshan District, Taipei City, Taiwan 10

- 1980년대 중반에 형성되어 타이베이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전통 야시장 중 하나로 지자체·상인·관광청이 협력하여 지역경제와 도시문화가 공존하는 생활형 상권 모델로써 대만의 대표적인 시민경제형 야시장
-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점포 정비·위생관리·영업시간 조정·축제행사 기획 등을 담당하고, 행정기관은 인허가·환경미화·안전관리 등 기반시설 지원 역할



야시장 입구



야시장 전경



야시장 전경

√군정 발전과 접목할 부분 또는 시사점

○ 민·관의 협력적 상권운영 모델

- 라오허제 야시장은 지방정부와 상인조합이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결 유지, 질서 관리, 외국인 관광객 안내 등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상인회 중심의 자치운영 체계가 정착되었음.
- 고성군 내 전통시장도 민·관이 협력하여 자율적인 공공서비스 지원 및 ‘통합 결제시스템’ 과 ‘QR코드 기반 다국적 언어 안내 서비스’ 를 활용한 스마트 상점 활성화 필요

○ 상권과 문화, 지역자산 연계 필요

- 라오허제 야시장은 송산자방궁과 결합하여 문화적 스토리텔링 상권을 형성하고 있음
- 우리군의 전통문화(당항포 해전, 공룡콘텐츠, 고택 거리 등)와 지역 상권을 연계할 수 있는 스토리형 골목상권 조성 필요

○ 상권 품질관리 제도 도입

- 라오허제 야시장은 ‘우수상인 인증제’ 를 도입하여 상권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었음
- 고성군도 상권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모범 상인 인증제’ 도입 검토

9. 21.(일)

1. 홍마오청

< 방문 개요 >

- ▶ 일 시: 2025. 9. 21.(일) : 10:30
- ▶ 주 소: 251 대만 New Taipei City, Tamsui District, 中正路28巷1號

- 홍마오청은 대만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동시에 내무부에 의해 국가급 고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또한, 2001년의 대만 10대 토목 사적으로도 선정⁴⁾
- 17세기 네덜란드가 대만 북부를 점령했을 당시 건설되어 스페인·청나라·영국이 차례로 사용한 다층적 역사 공간으로 대만의 근대사와 국제 관계 변천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지만, 운영은 홍마오청 문화재 자원봉사단이 주도하는 ‘시민참여형 문화재’ 운영 시스템 구축



외부 전경



역사 전시 전경

4) 위키백과



역사 전시 탐방



역사 전시 탐방



외부 시설물 탐방



외부 시설물 탐방

√ **군정 발전과 접목할 부분 또는 시사점**

○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재생**

- 홍마오청은 과거를 지키며 현재를 살리는 공간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 고성군도 과거의 기록이 담긴 구도심 자원(목욕탕, 양조장, 정미소 등)을 보존 리모델링 방식의 사업 추진 필요

○ **군민참여형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 홍마오청은 시설 관리는 지자체에서 관할하지만, 운영은 자원봉사단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시민참여형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음.

- 우리군 내 주요 문화재(고분군, 공룡발자국 화석지 등)에 자원봉사단·전문가·주민이 협력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군민참여형 관리체계 구축 검토

○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 홍마오청은 역사 유산의 보존 및 재생을 위해 주변의 카페거리, 소상공인 창업, 예술시장 조성 등을 활성화되어 있었음.
- 고성의 역사 유산 주변을 소상공인 창업·카페거리·예술거리로 재구성하는 모델 도입 필요

2. 국립고궁박물관

< 방문 개요 >

- ▶ 일 시: 2025. 9. 21.(일) : 14:00
- ▶ 주 소: No.221, Sec.2, Zhishan Rd, Shilin Dist, Shilin, Taipei 11143 Taiwan

- 박물관의 소장품의 수는 69만 7490개로, 세계 4대 박물관의 하나로, 3개월에 1번씩 전시하는 소장품을 전부 교환하고 있어, 모든 소장품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약 8년 여의 시간이 필요
- 2001년부터 소장품 보호를 위해 박물관 건물을 보수⁵⁾
- 온·습도 자동조절형 보존실, 디지털 보안시스템, 문화재 수복 전문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유물 관리 및 보존 시스템을 구축
- 모든 유물을 고해상도로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공개 및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전시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
- 해외 주요 박물관과 꾸준한 순회전을 추진하여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국제협력형 외교 행정을 펼치고 있음
- 관람구역에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등 7개 언어로 전문적인 안내 진행



유물 전시 공간



역사 전시 공간

5) 위키백과



역사 전시 공간



안내 데스크



계단 활용 아트 공간



내부 전경



유물 전시 공간



내부 시설

√군정 발전과 접목할 부분 또는 시사점

○ 공공문화 통합 모델 구축

- 국립고궁박물관은 단순한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서 교육·관광·문화 산업을 연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의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 우리군이 보유한 박물관 운영 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접목하여 고성군이 보존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단순 전시하는 것을 넘어 고성의 역사와 관광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적인 운영방향 필요

○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행정체계 구축 필요

-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 보존·복원·관리·운영을 각각 분리하여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었음
- 당항포 유적, 공룡박물관, 고성박물관 등 주요 문화유산 관리에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배치 및 조직운영 필요

○ 디지털 문화행정 기반 마련

- 국립고궁박물관의 디지털화 정책과 AI 기반 스마트시스템 도입은 문화재의 접근성과 보존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례임
- 우리군의 주요 박물관에 대해서도 디지털 아카이브 및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성의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관광객 유치 활성화 필요

○ 국제교류 기반 문화외교 확대

- 국립고궁박물관은 해외 문화기관과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해외 순회전을 통해 문화외교를 실천하고 있었음
- 고성군 또한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와 협력하여 상호 박물관 순회전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필요

9. 22.(월)

1. 타이베이시 의회

< 방문개요 >

- ▶ 일 시: 2025. 9. 22.(월) 10:00 ~
- ▶ 장 소: 타이베이시 의회
- ▶ 참 석
 - 고성군의회: 방문단 16명(군의원 10, 수행직원 6)
 - 타이베이시 의회: 타이베이시의회 직원 등
- ▶ 진행순서: 인사, 기관소개 및 현황 청취, 질의답변, 기념품 전달 등

■ 타이베이시 의회 현황

- 의원구성: 총 61명(임기 4년, 직선제)
- 상임위원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심의
- 회의 진행: 정례회 연 2회, 임시회 필요 시 소집
- 의사중계 시스템: 회의 생중계 및 회의록 공개 시스템 운영
-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청원, 공개 회의, 청소년 모의 의회 등

- 1967년 타이베이시가 직할시로 개편되고, 1969년 12월 25일 제1대 직할 시의회 구성
- 2022년 12월 25일 12개 행정구에서 선출된 17명의 초선 의원과 타이완 각 주요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61석의 의원으로 구성된 현재 제14대 타이베이시의의회가 정식 출범

○ 주요 질의 및 설명내용

Q. 타이베이시의회는 회기 운영(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조율하는지?

A. 정기회의는 6개월마다 1회 70일씩 개최되며, 총 예산 심의회는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시장, 의장 또는 총 의원 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 기간은 휴일과 정회를 포함하여 매번 1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12개월 동안 최대 8회를 소집할 수 있음.

상임위원회는 총 7개(민정, 재정 및 건설, 교육, 교통, 경무 및 보건, 공공사업, 법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관 안건을 심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회기 일정은 의회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되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은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됨.

Q. 의회 회의록, 의안 정보, 표결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A. 회의록 및 의안 처리 결과, 표결 정보 등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본회의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시의회가 처리한 모든 안건과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음.

Q. 주민 청원이나 시민 의견 수렴을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절차와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A. 시민들은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 주요 정책이나 조례에 대해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음. 시민 제안, 의견 수렴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Q. 디지털 회의 시스템, 원격 참석, 전자 의안처리 등 전체 회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기술적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 정부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제공하여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는데, 시의회 역시 원격 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였음. 의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투표 시스템과 전자 문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Q. 시민들의 방청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A. 본회의 기간 시민은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방청증’을 신청하면, 4층 방청석으로 입장할 수 있음. 단체의 경우 책임자가 인원, 날짜, 시간 등을 명시해 시의회에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야 함.

Q. 국제도시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A.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 간의 상호 영향이 나날이 긴밀해지고 있는 현대 시점에서, 시의회의 대외적 관계 강화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임. 국제우의를 매우 중시하고, 시민 외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 시의회는 각국의 시의회와 실질적인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7개국과 자매도시 51개, 파트너 도시 3개, 우호도시 5개의 결연관계를 맺고 있음. 한국의 경우 서울과 자매도시, 경기도와 우호도시를 맺었음.

Q. 여성 의원이 비율이 높는데 특별한 제도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A. 대만의 선거 제도에는 여성의 정치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성의원할당제’라는 것이 있는데, 비례대표의 경우 50%를 할당하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3석당 1명의 여성 의원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는 등의 규정이 있음.



시의회 방문 환영



시의회 소개 영상 시청



시의회 방문



본회의장 송출 시스템



본회의장 시설 견학



시의회 운영 관련 질의응답



방송중계 시스템 전경



방청실 전경



발언대



속기석



전자투표 시스템



의원석



시장 등 집행부 좌석



시의회 방문



시의회 방문



방문기념품 상호 전달



방문기념품 상호 전달



방문객 편의 위주의 로비



의정활동 홍보 게시판



의원실 입구



의원실 입구

√ 우리군의회의 발전에 접목할 부분 또는 시사점

○ 의회 운영 혁신 및 제고 개선

- 타이베이시의회의회는 의사결정 전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
- 우리군 의회도 ‘공개 중심의 회의운영’ 과 ‘정책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를 기초로 전자의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필요
- 아울러, 의정기록 전자화, 회의영상 상시공개, 주민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 등 디지털 의정행정 기반 확대 검토 필요

○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용한 의정 전문성 강화

- 의원 및 각 상임위원회별 현안 연구와 정책 발굴을 위해 ‘의정자문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행정, 농·어업, 산업·경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여성, 청년, 노인 등 맞춤형 정책개발 및 군정 반영 구조 마련

○ 열린 의회환경 조성

- 타이베이시의회의회는 디자인 이미지를 활용한 의원실 안내 명패와 사인물 배치로 방문객이 의원실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
- 우리군의회도 차별화된 디자인의 명패와 사인물을 도입하여 의원실 안내 디자인을 개선하고, 방문자 편의 중심의 의회 동선 재구성 필요
- 아울러, 의회를 방문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의회에 대한 편안하고 친숙한 이미지가 생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2. 베이더우 공공도서관

< 방문개요 >

- ▶ 일 시: 2025. 9. 22.(월) 14:00 ~
- ▶ 장 소: 베이더우 공공도서관
- ▶ 참 석
 - 고성군의회: 방문단 16명(군의원 10, 수행직원 6)
 - 도서관: 도서관 직원 등
- ▶ 진행순서: 인사, 기관소개 및 현황 청취, 질의답변, 기념품 전달 등

■ 도서관 현황

- 설립연도: 2006년
- 시설규모: 연면적 약 2,000m²(지상 3층)
- 대만 최초의 친환경 도서관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25선 선정

- 연면적 약 2,000m² 지상 3층 규모로 단순 도서관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친환경 체험공간 역할을 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
- 대만 최초의 친환경 녹색건축 도서관으로 지속가능 건축 행정 실천의 우수사례로, 건물 외벽 전면을 목재 구조와 태양광 패널로 설계하여 자연 채광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시스템 구축
- 빗물을 수집하여 화장실 및 조경용수로 재활용하고, 자연통풍 설계 방식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 실천

○ 주요 질의 및 설명내용

Q. 일반 도서관과 차별되는 특징은 무엇인지?

- A.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특징에 맞춰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생태교육을 중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일반 도서관과 달리 나무로 지어진 건물 자체가 주변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태양광, 빗물 재활용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음.

Q. 베이더우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A. 단순한 열람 도서관이 아닌 ‘주민생활형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층은 일반 열람실과 어린이 열람실, 카페로 구성되어 지역 아동들이 보다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2층은 회의실, 강연장, 문화동아리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층은 노년층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실 및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독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배우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생활형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Q. 친환경 설계를 통해 얻은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인지?

A. 대만 최초의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EEWH(Ecology, Energy Saving, Waste Reduction, Health)시스템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하였음.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전기를 생산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넓은 창문과 낮은 책장 배열은 자연광을 극대화하여 인공조명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통풍을 유도해 냉방 에너지 소비 또한 절감하고 있으며, 빗물 수집 시스템을 통해 모은 빗물은 화장실 용수와 외부 식물에 재활용하고 있음.

Q. 에너지 절감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A. 태양광을 남향 구조로 전면에 배치하여 연간 발전량이 약 50,000kW로 도서관에 필요한 총 전력의 약 20% 정도를 자체 충당할 수 있음. 천장에는 자동조도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실내 인공조명을 자동조절하여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음. 지붕에 수집된 빗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연간 약 30% 정도의 수자원 절감 효과가 있음. 또한, 통풍구 및 루버창을 다 단계로 설계하여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 유도를 통해 냉방에너지 사용률이 최대 20% 절감되고 있음.



담당자 설명 및 질의



넓은 창문 및 낮은 책장



도서관 외관



도서관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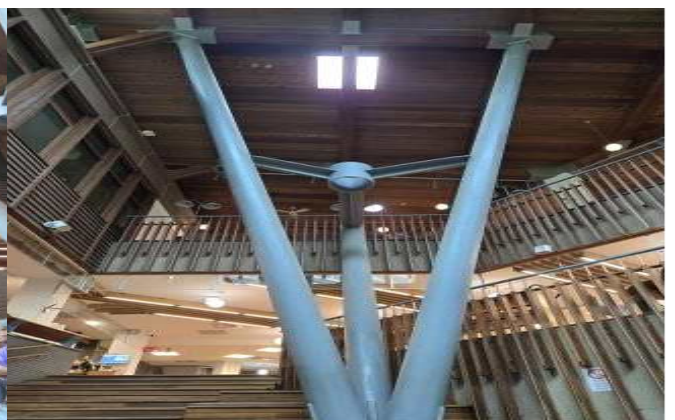
친환경 책장



친환경 외부



인공조명 최소화 친환경 천장



자연광 유도 친환경 설계

√군정 발전에 접목할 부분 또는 시사점

○ 친환경 공공건축의 모범 적용

- 베이더우 도서관은 공공건축이 환경정책의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었음.
- 향후 공공시설 건립 또는 개보수 시 태양광을 설치하여 연간 약 15~20% 전력 절감(베이더우 사례 기준)을 유도하고, 빗물 재활용(베이더우 사례 기준 약 30% 수자원 절감 추정), 자연통풍 등 친환경 건축 방식을 도입하여 행정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감 실천 필요

○ 책뚝방 도서관의 기능 확장

- 베이더우 도서관은 건물 자체가 관광자원인 구조로 문화시설이 지역 브랜드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였음.
- 신규 건립된 책뚝방 도서관을 중심으로 관광형 랜드마크와 평생학습, 그리고 지역커뮤니티센터로 발전시킬 전략 필요

■ 홍콩

국명	- 홍콩 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RC)
위치	- 동아시아, 중국 남부 해안에 위치, 광둥성 인근
면적	- 약 1,108 km ² (전체), 육지 약 1,073 km ²
기후	- 아열대 몬순 기후, 겨울엔 선선·습함, 봄·여름엔 고온 다습하고 강우 많음, 가을엔 온화·맑음
인구	- 약 7.53백만 명
수도	- 공식적인 수도는 없음. 행정 중심은 빅토리아시(港島 북부 중심지)
주요도시	- 홍콩섬(중·동부), 구룡, 신계 등
민족	- 중국계(92%), 필리핀계(2.7%), 인도네시아계(1.9%), 기타 외국인(3.4%)
종교	- 불교·도교 각각 1백만 이상, 기독교(개신교 약 1.04 백만, 가톨릭 약 0.39 백만), 무슬림 약 0.30 백만, 힌두교·시크교 등
언어	- 광둥어(93.7%), 영어(58.7%), 만다린(54.2%)
시차	- 한국기준 -1시간
전압	- 220 V / 50 Hz
화폐	- 홍콩 달러 (HKD, HK\$)
건립일	- 영국 반환일: 1997년 7월 1일
정부형태	- 중국 내 특별행정구, 행정장관(Chief Executive) 중심 단원제 정부
국가원수	- 시진핑 (Xi Jinping)
총리	- 존 리 (John Lee Ka-chiu)
명목 GDP	- 약 4,018억 USD
경제성장률	- 연 3.1 %
1인당 GDP	- 약 55 천 USD
실업률	- 약 2.7%
물가상승률	- 약 2.3%
산업구조	- 서비스 중삼 GDP 대비 약 91.5% 고용도 서비스 약 86% 산업 약 6% 농업 약 0.2%
교역규모	- 수출 약 6,733억 USD, 수입 약 6,700억 USD

9. 23.(화)

1. 빅토리아 피크

< 방문 개요 >

- ▶ 일 시: 2025. 9. 23.(화) 09:00
- ▶ 장 소: Victoria Peak, The Peak, Hong Kong

- 빅토리아 피크(영어: Victoria Pick, 중국어: 太平山)는 높이 552m로 홍콩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에는 피크 타워와 중국풍의 정자가 있음
- 피크 트램이나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 홍콩섬과 빅토리아항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지



전경



전망대



발바닥 조형(서울 방향)



맨홀뚜껑 활용사례

√군정 발전에 접목할 부분 또는 시사점

○ 우수 사면 관리체계 접목 필요

- 빅토리아 피크를 포함한 홍콩섬 일대는 산사태 위험이 높아, 행정·설계·관리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면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었음.
- 해안지형 특성을 공유하는 우리군에도 이를 접목하여 △종합 사면안전 관리체계 구축 △설계·시공 기술의 고도화 △예방적 감시 및 유지 관리 체계 강화 △위험지구 우선순위 기반 보장 및 관리체계화 등 필요

○ 작지만 세심한 볼거리 조성

- 각 국가의 주요도시 방향과 거리를 표시한 발바닥 모형, 그리고, 맨홀 뚜껑을 활용한 방향 등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방문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볼거리가 많았었음.
- 굳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고성군 내 주요 관광지 내에도 독창적인 볼거리 개발 필요

√태풍에 따른 연수활동 중단(9월 23일 14시 ~ 24일)

○ 홍콩 지역은 9월 23일 ~ 25일 태풍 ‘라가사’ 최고등급 발령(제10호)으로 전 지자체·학교·상업시설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었음.

- 현지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수활동 중지
- 일정 중단 기간에는 예정 방문기관에 대한 조사와 대만과 홍콩의 도시 계획 비교분석 등 자료 기반 정책연구 활동을 병행하여 연수성과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활동을 실시하였음.

-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대만 타이베이 및 홍콩 지역의 주요 도시행정·문화·환경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 도시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과 시민참여 중심의 행정체계를 경험하고 고성군의 행정과 의회의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
- 대만의 국립 중정기념당, 용산사, 홍마오청, 국립고궁박물관 등은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의 정체성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 대표적 사례였음. 이들 시설은 단순한 문화재 보존을 넘어 교육·참여·관광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고성군의 문화자원(당항포, 공룡발자국 화석지, 송학동고분군 등)을 문화·교육·관광이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육성하는 데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됨.
- 베이더우 공공도서관은 지속가능한 행정을 건축·환경 측면에서 구현한 사례로, 도서관을 단순한 열람공간이 아닌 친환경 실천·지역 커뮤니티 센터·평생학습 공간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행정이 공간을 통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고성군도 책뚝방 도서관을 시작으로 공공건축물의 개보수 또는 신축 시 △친환경 건축 도입 △주민 참여 공간 기능 강화 △평생학습 기반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함.
- 타이베이 101 타워, 라오허제 야시장, 홍콩 빅토리아 피크는 도시의 상징적 경관과 상업·관광 기능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딩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였음. 고성군도 자연자원과 도시공간을 연계한 경관 중심의 관광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상권과 연계된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타이베이는 이륜차 중심의 도시 환경에 맞추어 도로와 보도 연결부를 무단차로 설계하고, 색상·질감 구분을 명확히 하여 보행자와 이륜차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음. 이러한 방식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에 노인·어린이 보행 안전을 우선하는 시범사업으로 적용할 경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강우가 잦은 지역 특성에 맞춘 효율적 배수체계 역시 인상적이었음. 타이베이 시내 도로측구 곳곳에 설치된 집수정·배수파이프는 물고임을 최소화하여 우천 시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있었음. 이러한 방식은 고성군 시가지의 고원식 횡단보도, 상습 침수지역 등에 적용할 경우 보행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도시 내 유희공간(작은 화단 주변, 고가도로 하부 공간 등)을 활용한 이륜차 또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조성할 경우 주민불편 해소에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대만과 홍콩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환경·문화·경제가 통합된 지속 가능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었음. 양 지역 지자체는 문화유산 보존, 시민참여, 친환경 건축, 관광산업 진흥을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는 향후 고성군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핵심 사례라고 판단됨.
- 이들 도시에서는 도시의 자산을 ‘시민이 공유하는 공공가치’로 재해석하고 있었음. 행정은 도시공간을 관리하는 방식을 시민 삶의 질·지역 정체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있었으며, 이는 고성군의 행정 및 의정활동에서도 △군민참여 행정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역 경관 기반 도시브랜딩 추진 △문화·관광 융합형 산업 육성 △공공시설의 교육·복지 기능 강화 등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VI 정책 제언

○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도출된 5대 정책 제언은 △실행 용이성 △예산 효과성 △고성군 현안 부합도 △의정활동 연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단기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 전략과제까지 단계별로 구성하였음.

1. 공공문화·역사자원 복합화

(사례) 중정기념당, 홍마오청, 국립고궁박물관 등은 역사·문화·교육·관광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제언) 당항포, 공룡발자국 화석지, 송학동고분군, 전통시장 등 우리 군 주요 자산을 ‘군민참여형 복합문화공간’으로 단계적 전환

(의회 역할) 관련 조례 정비 및 예산 반영 요구,

시범사업(1~2개 거점) 선정 및 성과 평가를 통한 확대 추진

2. 친환경 공공건축 및 도서관 정책 고도화

(사례) 베이터우 공공도서관은 친환경 건축과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생활형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제언) 책뚝방 도서관을 비롯한 향후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태양광 △빗물 재활용 △자연통풍 △에너지 절감 설계 등을 의무화 또는 우선 반영하는 기준 마련

(의회 역할) ‘친환경 공공건축 지침’ 수립 촉구, 관련 예산·용역사업 심의 시 친환경 요소 반영 여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적용

3. 상권·관광·경관 연계형 도시전략 수립

(사례) 타이베이 101, 라오허제 야시장, 빅토리아 피크 등은 경관·관광·상업이 결합된 도시브랜딩 모델로 기능하고 있었음.

(제언) 고성군의 자연경관과 도시공간(당항포, 남포항, 고성시장 일대 등)을 ‘주민참여형 복합 관광지구’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

(의회 역할)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관광정책 관련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상공인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및 결과의 정책 반영 촉구

4. 디지털 의정행정 구축

(사례) 타이베이시의회는 회의록·의안·표결 결과를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회의·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정활동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었음.

(제언) 고성군의회도 전자의정시스템, 회의영상 상시 공개, 주민 의견 수렴 창구(온라인 청원·질의응답 게시판) 도입 검토

(의회 역할) 의회사무과에서 단계별 도입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및 시스템 도입 후 운영점검 실시

5. 공공시설 주민참여 운영체계 구축

(사례) 홍마오청, 중정기념당, 용산사 등은 자원봉사단·시민단체·상인회 등이 운영에 깊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공시설 운영 모델을 실천하고 있었음.

(제언) 고성군 내 박물관, 역사유적, 공공문화시설 등에 ‘민·관 공동 운영 모델’을 시범 도입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운영·운영·평가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

(의회 역할) 관련 조례 제정·개정(위원회 설치 근거, 참여 방식, 지원 기준 등)과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제도화 추진

VII 로드맵

○ 단기(2026년 상반기)

- 전자의정시스템 도입 검토
- 책담병 도서관 운영 다각화
- 고성형 모범상인 인증제 시범 설계
-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 중기(2026년 하반기 ~ 2027년)

- 친환경 건축 지침 제정
- 박물관·유적지 디지털 안내 시스템 구축
- 고성읍 도시재생 지역 중심 복합관광지구 모델 추진

○ 장기(2028년~)

- 지역브랜딩 기반 도시전략 수립
- 주민참여 기반 공공시설 운영 전면 확대 등

VIII 결론

-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공공자산 운영·시민참여 행정·디지털 의정환경 등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고성군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둔 공식 연수 활동이었음.
- 각 국가별 방문대상지는 △공공자산 운영·보존 △도시브랜딩 △시민 참여 모델 확인을 위한 실제 정책 학습의 대상이었으며, 방문지별 정리한 시사점은 고성군 문화·관광 정책 개선에 직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사례였다고 판단됨.
- 고성군의회는 지속가능 행정, 시민참여 기반 공공서비스, 친환경 공공건축, 도시브랜딩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하여 현장 조사, 문헌 검토, 비교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실행 가능성 △효과성 △고성군 현안 부합도를 기준으로 고성군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5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 제시된 정책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연차별 예산 확보방향 제시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연수를 통해 경험한 선진 사례들은 향후 고성군의회 의 입법·예산·감사 기능 강화와 이를 통한 군민의 삶과 군정의 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됨.

IX 의원별 연수기

■ 최을석 의장

I 출장 개요

- 일 시: 2025. 9. 20.(토) ~ 9. 25.(목) [5박 6일]
- 방문국가: 대만 및 홍콩
-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대만과 홍콩을 방문하여 의정발전 도모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를 견학하였다. 당초 예정했던 홍콩 일정은 태풍 영향으로 취소되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대만에서의 의회 방문과 공공시설 시찰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II 타이베이시의회

□ 구성 및 현황

- 타이베이시의회는 12개 구에서 선출된 6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3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도 성별 대표성 확보를 위해 참고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 군정질문

- 타이베이시의회는 의원 1인당 40분의 군정질문 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군정질문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으로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국제교류 및 홍보활동

- 타이베이에서는 시와 의회가 각각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외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도 전문적으로 접근해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었다. 고성군의회도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워야 할 점이었다.

□ 의회 운영

- 본회의장 좌석 배정에서는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타이베이 시의회는 추천을 통해 좌석을 정하는 반면, 우리 의회는 다선·연장자 순으로 자리를 정하고 있다. 각각의 방식이 가진 장단점을 비교하여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 회의중계시스템

- 회의중계는 주로 기자들이나 타 의회 관계자들이 시청하며, 일반 시민들의 시청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현재 우리 의회도 일부 민원인들의 건의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회의중계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나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관련 사진



Ⅲ 베이더우 공공도서관

□ 친환경 건축물로서의 특징

- 베이더우 공공도서관은 친환경 건축물의 모범사례로 자연친화적 설계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건축기법이 인상적이었다. 최근 고성군에 건립된 책뚝병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많은 배울 점이 있었다.
- 베이더우 도서관은 자연채광을 극대화 하고,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설계가 특징이었다. 특히 빗물을 재활용하여 수목에 물을 주거나 화장실 용수로 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으며,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2~3일 내 제공하는 도서서비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 건축 정책에 대한 생각

- 고성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있어 무분별한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친환경 건축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예산절약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특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고성군도 공공건물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시작해야 한다. 베이터우 도서관과 같은 친환경 건축기법을 벤치마킹 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관련 사진



IV 맺음말

-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선진의회 운영사례와 친환경 건축물의 실제 사례를 직접 견학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우리 고성군의회와 고성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 앞으로 고성군의회는 군정질문 활성화, 의정활동 홍보, 친환경 정책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우정욱 부의장**

- 고성군의회의회에서 부의장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잘 진행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선진사례를 직접 보고 들으며 타산지석으로 삼아 여러 군정 현안을 대할 때 더 넓은 시야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기관 중 타이베이시의회의 사례에 대해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 타이베이는 대만의 수도로 약 245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 우리나라 대구와 비슷한 규모의 큰 도시입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타이베이를 방문하면서 공식 방문 기관 중 하나인 타이베이시의회의 운영 방식과 의원구성, 본회의장 구조 등을 직접 살펴보고 우리군의회의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선진의회들의 우수한 운영 제도를 찾아 추후 고성군의 실정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대만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먼저 대만의 중앙정부를 살펴보면 5권 분립 체제를 채택하여 행정원, 사법원, 검찰원, 고시원과 입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법원은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역할로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대만의 지방정부는 6개의 직할시와 16개 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한국과 비슷하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등 한국과 유사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 **타이베이시의의회(Taipei City Council) 방문**

- 타이베이에 도착하고 삼 일째에 타이베이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회에 도착하여 관계자분께 시의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시의원은 8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6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예산안 심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행정기관 감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상임위의 종류는 민정, 재정건설, 교육, 교통, 경무 보건, 공공사업, 법규 등으로 도시 전반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 형평성과 투명성을 위한 본회의장 배치 사례

- 타이베이시의회는 본회의장도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의 의원석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의원석을 매년 한 차례 추천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좌석을 추천으로 정하는 방식은 의원 수가 많은 타이베이시의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의원이 유리한 자리를 계속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원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었습니다.
- 우리 고성군의회의회는 모두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로 볼 때 상대적으로 좌석 배치의 영향이 적지만, 타이베이시의회처럼 의원 수가 많은 경우라면 좌석의 위치에 따라 의사 진행이나 토론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타이베이시의회에서는 당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좌석을 배치하여 본회의장에서 당파적 구도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자유롭고 균형 있는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을 포용하고 민주적인 의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회의장 내 집행부 좌석 배치에서 시장의 좌석이 일반 집행부 부서장들과 같은 책상에 같은 의자로 배치되어 있었던 점도 우리 의회와 다른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리 배치만 놓고 보더라도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상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구성원들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를 지향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타이베이시 집행부 내부에서 소통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공간적인 배치에 반영한 좋은 사례로 보였습니다.

□ 관련 사진



본회의장 의원석

본회의장 내 시장과 집행부 좌석

- 본회의장에는 2층과 3층 공간도 있었는데, 2층은 기자석으로 사용하고 3층에는 일반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3층의 방청석과 본회의장 사이에는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회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잘 대비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그리고 일반인 방청석에 별도의 스피커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이 회의 내용을 잘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본회의장 구조는 언론의 접근성과 주민의 방청 권리를 배려하면서도,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질서 확보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설비는 시민참여의 확대와 투명한 의정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의회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다음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타이베이시의회의 여성 정치 참여 현황과 시사점

- 타이베이시의의회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각 지역구에서 시의원 정원이 3명 이상이면 여성 당선자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제14대 시의원 61명 중에서는 여성 의원이 30명이며 모두 높은 득표로 당선되어 이번에는 여성

당선자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았다는 점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 우리 고성군의회의도 11명의 의원 중 6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타이베이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곳이지만, 타이베이시는 더 나아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사례로 생각됩니다.
- 타이베이시의회의와 우리 의회는 직할시와 군 단위라는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차이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직위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과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운영 철학은 우리도 주목하고 배울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향후 고성군의회의의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

- 공무국외출장의 주요 일정으로 대만 타이베이시의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찰에 그치지 않고, 선진의회 운영의 구체적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우리 군의회의 의정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타이베이시의회는 아시아 최초의 민주정부 수립 이후 형성된 대만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주민 자치와 분권을 선도해 온 핵심 기관이다. 이들은 주민 복리를 위한 조례·규칙 제정,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심사, 행정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대표 기능과,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까지 균형 있게 펼치고 있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회의 과정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정 생방송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기능과 효과를 갖추고 있었다.

□ 타이베이시의회 의정 생방송 운영 시스템

- 첫째,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모든 회의 진행과 발언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논의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의회의 활동을 직접 확인하며, 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 둘째, 참여 확대 측면에서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함으로써 의정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개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의회의 결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주민 대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 셋째, 민주적 운영 기반 강화 측면에서, 이러한 생방송 시스템은 의회 내부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 구축과 민주적 절차 확립에 기여하고 있었다. 단순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의회 운영의 핵심 원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임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 타이베이시의회 국제 교류 활성화

- 아울러 타이베이시의회는 국내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 각국의 지방의회와 활발히 교류하며 상호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가치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타이베이시의회 방문을 통한 시사점

- 이번 해외연수 경험은 현재 우리 의회가 추진 중인 「고성군의회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와도 깊이 연결된다. 해당 조례에는 의정활동을 군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 설치·운영 근거가 담겨 있으며, 회의 중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타이베이시의회의 선진적인 생방송 운영 사례와 맞닿아 있으며, 향후 고성군의의회가 군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무엇보다도 마음에 남는 교훈은 분명하다. 군민과의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의회의 책무라는 점이다. 의정의 전 과정에서 보이는 의회, 설명하는 의회, 함께 결정하는 의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군민의 신뢰가 깊어진다. 우리 의회는 이번 연수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공개·소통 시스템을 세심히 구축하고, 조례 제정과 운용 과정에서도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갖추겠다. 아울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

□ 관련 사진



■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

- 이번 공무 국외 출장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주요 소관 분야에 맞추어 방문 기관의 친환경, 문화공간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배워서 군정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이에 방문 기관에 대한 사전 조사와 질문 사항을 작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더 발전적인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사진으로 만나는 역사, 공간에 이야기를 더하는 콘텐츠 제안(중정기념관)

- 방문 첫째 날에는 타이베이시에 위치한 중정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대만의 초대 총통이었던 장제스(장개석)를 기념하는 중정기념관은 외관부터 넓은 광장과 높은 벽이 웅장한 느낌을 주었다. 계단을 올라 기념관 내부로 들어가면 다양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 관련 사진



중정기념관 사진 벽면

- 기념관 내부 전시물 중 장제스와 관련된 역사적 사진들을 벽면 가득히 배열해 놓은 곳이 특히 인상 깊었다. 흑백과 컬러 사진을 섞어 배치된 사진들을 보며 방문객들에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공간의 몰입감을 높여주었고 당시의 일들이 더 가슴에 와닿게 느껴졌다.
- 우리 고성군에는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고성박물관이 있으며, 현재는 내부 공간과 전시 콘텐츠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리모델링 중인 박물관의 빈 벽면에 중정기념관의 역사적 사진 벽면 구성을 접목해 본다면, 고성의 거리, 마을 풍경 등의 모습을 주제로 하는 사진 전시 벽을 조성하여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모습들을 모아놓으면 지역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특히 관람객이 예전 사진 속 장소를 현재 모습과 비교하며 참여할 수 있는 ‘고성의 그때 그 장소’ 같은 콘텐츠를 기획하면 방문객의 참여와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또 고성군에는 빈민 운동가 제정구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문화공간인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불굴의 도전 정신을 보여준 엄홍길 산악인의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도 벽면 사진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인물들의 이야기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기획사진전 등을 연계한다면 지역민의 관심을 높여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움직이는 유물, 살아있는 전시(국립고궁박물관)

- 다음 날에는 타이베이시의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약 70만 점 이상의 중국 고대 유물을 소장하고 있었다. 박물관에 들어가니 전시관 입구부터 독특한 만화가 재생되고 있는 화면이 눈길을 끌었다. 자세히 보니 박물관에 보관된 주요 전시물을 캐릭터화하여 애니메이션 만화로 제작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움직이는 만화는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쉽게 관심을 끌며 유물의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주고 있었다.
- 전시물 아래에 딱딱한 설명을 붙여놓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만화 캐릭터들이 움직이며 그 당시의 유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방식은 전시물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정보 전달력을 높여 교육적 효과까지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 관련 사진



- 고성군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공룡 발자국 화석이 대규모로 발견된 곳으로 관련된 공룡 콘텐츠를 바탕으로 고성 공룡박물관에서 실제 화석과 모형은 함께 전시하고 있다.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방식을 보며, 우리도 공룡박물관에 보관 중인 공룡화석과 고대의 유물들로 만화를 제작해서 살아 움직이는 공룡과 당시 사람들이 유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만화 애니메이션과 연계하여 어린이, 가족 단위 단체 관람객들이 직접 화면을 보며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관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고성 공룡박물관만의 이야기를 붙여넣어 줌으로써 전시 관람 만족도를 제고하고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길 기대한다.

□ 도심 한가운데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베이터우 공공도서관)

- 이번 공무 국외 출장에서 인상 깊었던 곳 중 하나로 친환경 설계로 유명한 타이베이 베이터우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친환경 도서관이라고 하면 한적한 교외의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타이베이 시내 가운데에 있는 베이터우 공원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었다.

- 정식 명칭은 ‘타이베이 국립도서관 베이터우 지점’이며, 대만 내 최초로 친환경 건축으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으로 2006년에 개관했다. 201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공도서관’ 중 하나로도 선정되었다고 하며, 자연과 조화된 건축으로 여러 친환경 설비들을 갖추고 있다.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된 지붕으로 자체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빗물 집수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식물 급수와 화장실 용수로 재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존의 가치를 살리려는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 도서관 가는 길에 베이터우 공원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는데, 방문하기 전부터 느꼈던 것이 공원 내의 수목이 잘 가꾸어져 있다는 점이였다. 큰 나무들이 많고 수풀이 잘 관리되면서도 풍성하게 우거져있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본 도서관은 사전에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다소 소박하면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외관에 보이는 부분이 나무와 돌로 되어 있는 특징으로 인해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도서관이 주변의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 관련 사진



- 도서관 뒤편에는 연꽃으로 가득 덮인 작은 연못이 있는데, 연못의 모양이 대만의 지도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이것을 보고 연못 하나를 만들더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감성적인

부분을 생각하여 만든 부분이 인상 깊게 느껴졌다. 또 공원 내의 가로등도 목재로 되어 있었고, 계단 옆 손잡이 난간까지도 대나무 모양으로 설치하는 등 세부적인 시설물까지 주변과 잘 조화된 모습으로 친환경 개념이 가득 스며들어 있었다.

□ 조형미가 살아 있는 도서관 설계, 배를 닮은 베이터우 도서관

○ 베이터우 도서관의 또 다른 특징은 배 모양을 닮은 외관에 있다. 도서관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외관은 나무 소재로 된 외벽과 격자 구조로 층층이 쌓여 배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독창적이면서도 주변 환경에 잘 어우러져 있었다. 이것은 마치 숲속에 정박해 있는 나무배를 연상시키며 도서관 전체가 큰 조형물처럼 느껴졌다. 독특한 설계와 조형미를 보며 공간 자체가 주는 느낌이 직접 방문하는 이들에게 인상적인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관련 사진



베이터우 공공도서관 외관

○ 우리 지역에도 여러 도서관이 있지만 설계부터 조형미를 고려한 사례는 아쉽게도 부족하다. 기존의 네모난 상자형 건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도서관의 외관을 책 모양으로 하는 등 베이터우 도서관의 사례처럼 건물 외관에 조형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미적

아름다움과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게 된다면, 이러한 조형적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적극적으로 살려 공간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방안이 접목되길 기대한다.

□ 자연 속에서 쉬어가는 문화 공간 조성, 도심 속의 힐링 공원에 접목

- 최근 우리 고성군에서 어린이 도서관인 ‘책뚝병 도서관’이 개관했다. 우리 지역의 도서관도 베이더우 공공도서관처럼 공원 내에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독서 공간뿐만 아니라 힐링 공원 속에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지역 문화 거점 공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곳이다.
- 책뚝병 도서관을 조성하며 기존 부지에 심겨 있던 뽕나무들을 그대로 보존한 점은 봄철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공원 내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베이더우 도서관처럼, 책뚝병 도서관 주변에도 지금보다 더 풍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간다면 어린이들이 자연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기존 수목에 더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심고 가꾼다면 공원을 사계절 내내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풍부한 녹지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후 공원 내 산책을 한다거나 가족 야외 독서 프로그램, 자연 관찰 체험, 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 자연과 독서, 놀이와 교육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책뚝병 도서관에 기존의 도서 검색을 위한 컴퓨터 외에 교육 자료 탐색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더 배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도서관 운영에서도 이제 책만 읽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지역 문화 공간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녹지 조성 정책과 어린이 중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주민의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도

서관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 도심 유휴 공간의 활용, 타이베이시 고가도로 하부 주차장 사례

○ 관련 사진



타이베이시 고가도로 하부

- 타이베이시를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심 곳곳에 고가도로가 많이 보였다. 보통 고가도로 하부 공간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타이베이시는 고가도로 아래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타이베이시는 인구 밀도와 차량 보유율이 높은 도시로 도시의 공간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 우리나라도 국토 면적이 좁고 차량 보유율이 높아서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타이베이시의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 사례는 도시 내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도심지역에 고가도로 아래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공간 활용 정책을 검토한다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

- 이번 공무 국외 출장은 우리 의회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진행되었다. 의회 운영 체계 연수와 문화·공공시설 답사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소감문을 통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 먼저, 의회 운영 선진 사례 학습이다. 타이베이시의회 산업·경제 상임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직접 살펴보며, 회의 준비부터 의사결정 과정,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의회 간 교류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 타이베이시의회는 정례적인 교류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정책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순환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의회에도 즉시 접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 관련 사진



- 다음으로, 문화·공공시설 답사를 통한 시사점이다. 타이베이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공간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례들이 곳곳에 있었다.
- 도심 중심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화단 주변에 이륜차 주차 공간을 함께 배치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자투리 공간 활용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읍내 중심가나 전통 시장 주변과 같이 보행과 차량 이동이 충돌하는 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관련 사진



- 넓은 중앙분리대나 보도 공간에 단순히 나무 몇 그루를 심는 데 그치지 않고, 작은 숲을 조성하듯 다양한 수종을 배치해 녹음이 짙은 가로수 길을 만들어 도심 속 가로수 숲 조성 놓았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걸으며 휴식할 수 있고,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라는 환경 개선 효과까지 얻고 있었다. 우리 지역도 읍내 주요 도로, 학교 주변, 공원 인접 도로변에 이런 개념을 도입한다면 도시 환경과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세 번째로,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 얻은 교훈이다. 출장 중 초강력 태풍 라가사가 발생해 애초 계획했던 홍콩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행정기관은 명확한 지휘 체계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했다.
- 대피소에는 식품과 의료, 심리 지원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차분히 대처했다. 이 모습은 재난 대응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 특히 홍콩의 사례는 우리 지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1·2·3단계처럼 단순하고 명확한 체계는 주민 혼란을 줄이고, 학교와 기업의 대응 매뉴얼을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도 특보 단계별 휴교·휴업 기준을 법령이나 지침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태풍 주의보와 경보 단계별로 대중교통 운영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민 안전을 지키고 있었고 홍콩은 중앙집중형, 우리나라는 지방분산형으로 재난 상황에는 우리도 “통합지휘본부”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이번 출장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의 과정이었다. 앞으로 군민 모두가 동시에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재난 알림 체계, 의료와 심리 지원까지 가능한 안전한 대피소, 취약계층이 우선 보호받는 촘촘한 지원망을 마련해야 한다.

- 비록 일정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해외 경험은 의회 운영, 문화·공공시설, 재난 대응 전반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 앞으로도 해외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고성군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

■ 김향숙 윤리특별위원장

- 이번 대만·홍콩·마카오 공무국외출장은 예기치 못한 태풍과 비로 일정의 상당 부분이 취소되어 아쉬움이 컸다. 그럼에도 짧은 일정 속에서 지역 먹거리가 브랜드로 자리 잡고 관광 자원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고성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 첫째, 단일 품목으로 세계적 브랜드를 만든 전략이다.

- 타이베이 101 지하에 위치한 던타이핑 매장은 샤오롱바오 하나로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다. 1958년 식용유 판매점으로 시작해 현재 15개국 17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성공 비결은 명확했다. 엄격한 재료 선별 기준, 18개 주름으로 통일된 제작 방식, 매장마다 동일한 맛을 구현하는 시스템이 소비자 신뢰의 기반이었다. 오픈 키친에서 숙련된 장인들이 샤오롱바오를 빚는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신뢰와 품질을 동시에 전달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 고성군도 가리비, 멸치, 굴, 방울토마토, 딸기, 참다래, 앳은뱅이밀 등 우수한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던타이핑처럼 한두 가지 핵심 품목을 선정하여 품질 표준화와 스토리 개발에 집중한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투자보다는 대표 품목 선정과 품질 관리 체계 구축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 둘째, 디저트를 통한 관광 콘텐츠화이다.

- 대만 융강제에 위치한 스무시 하우스는 CNN이 선정한 디저트 맛집으로, 망고썬 아니라 타로, 타피오카 등 대만 특유의 식재료를 디저트로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다. 홍콩 센트럴의 타이칭

베이커리는 1954년부터 70년간 에그타르트만 집중 생산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하루 4천 개 판매라는 수치가 증명하듯, 한 가지 메뉴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이 브랜드 가치로 연결된다.

- 고성군도 방울토마토, 딸기, 참다래, 블루베리, 앳은뱅이밀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과 함께 갯장어, 가리비, 멸치, 굴 등 수산물을 활용한 특화 메뉴를 만든다면 고성만의 독특한 맛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 한두 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디저트나 요리로 집중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셋째, 체험형 먹자골목을 통한 관광 활성화이다.

- 대만의 융캉제와 라오허제 야시장은 단순 판매를 넘어 체험을 제공한다. 오픈 주방에서 조리 과정을 직접 보여주거나 소규모 가게마다 차별화된 레시피로 특색을 살리는 모습은 방문객에게 구매 이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융캉제는 딘타이핑 본점을 비롯해 우육면, 총좌빙, 누가 크래커 전문점들이 밀집하여 하나의 먹거리촌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 점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낸다.
- 고성군은 상족암군립공원과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와 연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주변이나 주요 동선에 소규모 체험형 먹거리촌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넷째,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다.

- 홍콩의 웰컴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유통 기업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1945년 설립되어 현재 홍콩 내 28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최대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투명한 원산지 정보 제공, 품질인증

시스템, 과학적인 온도·습도 관리, 주기적인 선도 검사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고려한 다양한 포장 단위, 직관적인 매장 동선 설계,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배송 체계 등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인상적이었다.
- 고성군 특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생산 단계의 품질만큼이나 유통 단계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청정 해역의 수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군의 특성상, 선도 유지 기술과 품질 보증 체계가 소비자 선택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관련 전문가 자문과 단계적 투자를 통해 선진 유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출장으로 로컬푸드 정책의 핵심은 품질과 일관성,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있음을 확인했다. 샤오롱바오 하나, 에그타르트 한 조각에 담긴 장인정신과 70년의 역사가 곧 경쟁력이 되는 모습을 보며, 고성군도 우리 특산물에 담긴 가치를 제대로 발굴하고 알린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느꼈다.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문화 콘텐츠이자 경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대표 농수산물의 품질인증 체계 구축과 브랜드가치 제고이다. 둘째, 지역 농산물 기반 시그니처 메뉴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다. 셋째, 관광 동선과 연계한 체험형 로컬푸드 클러스터 조성이다. 넷째, 청년 농업인과 외식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다.

○ 관련 사진



○ 이번 공무 국외 출장에서 얻은 경험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고성군 로컬푸드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성군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관련 사진





■ 이쌍자 의원

- 나는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오는 공무 국외 출장에 참여했다. 이번 출장은 세 지역의 선진적인 도시 인프라와 의회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일정이었다.
- 그러나 일정 중 초강력 태풍 라가사가 발생하면서 일부 일정은 부득이하게 취소되었고, 조정된 일정 속에서 핵심 방문지를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며 도시 인프라와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 특히 이번 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정 중 하나는 타이베이시 의회 방문이었다. 타이베이시의회에서는 선진적인 의회 운영 체계를 배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의회 간 교류의 폭과 깊이가 얼마나 넓은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타이베이시는 자매도시 51개, 파트너 도시 3개, 우호 도시 5개와 교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행정 차원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었다. 의회가 직접 나서서 교류를 제도화하고, 민간과도 활발히 연결되는 구조를 보고 큰 울림을 받았다.
- 나는 질의응답 시간에 이러한 교류 방식과 예산 편성 근거를 직접 질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호 도시 교류 관련 예산이 의회 차원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반면 우리 고성의 경우, 현재는 대부분 행정 차원에서만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우리 고성군의회도 자매도시, 우호 도시, 그리고 다양한 MOU 체결을 통해 교류 폭을 넓혀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편성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은 고성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관련 사진



○ 또 다른 인상적인 부분은 타이베이 시내의 보행 친화적 도로 설계였다.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고, 경계를 색채 도색으로 구분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유모차를 미는 부모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도로’ 라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우리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면 군민 여러분께서도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 관련 사진



- 또 하나 주목한 점은 효율적인 배수 시스템이었다. 타이베이 시내 도로 곳곳에는 물 고임을 방지할 수 있는 세밀한 배수 설계가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도로 측구 주변에 배수 파이프를 설치해 빗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도록 한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 고성읍 시가지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에 이러한 방식을 일부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면, 우천 시 불편을 크게 줄이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됐다.

- 관련 사진



- 비록 태풍으로 인해 계획했던 일부 일정이 취소됐지만,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은 매우 값진 것이었다. 선진 도시가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 고성군 정책에도 반드시 참고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 이번 출장에서 배운 선진 사례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환경 개선 방안을 의정 활동 속에서 꾸준히 제안하고 추진해야겠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 우리 고성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는다.

■ 정영환 의원

- 대만의 용산사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대표적인 사찰로, 전통 건축 양식과 정교하고 화려한 목조건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사찰 본연의 경건한 분위기와 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 이처럼 문화유산 보존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참배객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찾아 활기찬 현장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 특히 ‘소원기원 코스’와 ‘소원점괘 보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은 방문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필수코스로 자리 잡은 듯 보였다.
- 또한 방문객들이 각자 준비한 과일이나 과자, 도넛, 음료 등을 시주하는 모습은 종교문화와 관광이 조화된 현장감을 느끼게 했으며, 이러한 체험은 용산사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체험형 문화관광지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 그리고 용산사 곳곳에서 드러난 공간 활용 방식도 눈에 띄었다. 건물의 기둥이나 화단 주변의 자투리 공간에 벤치형 의자를 설치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쉬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주변과 조화롭고 세련되어 처음에는 의자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세심한 공간 활용은 문화유산과 사찰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는 좋은 사례로 느껴졌으며 고성군에도 공간 조성 시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 아울러 용산사 주변의 관광야시장도 주목할 만했다. 이곳은 방문객들이 종교·문화 체험을 마친 후 지역의 전통 먹거리와 특산품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기찬 상권이 조성되어 있었다.
- 이러한 구조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고 있었다.
-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 군에서도 옥천사와 성보박물관, 송학동 고분군과

고성박물관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역사적 명소와 전통 문화 자산을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융합한다면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별화 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추가로 관광지 주변에 특화 야시장 및 소규모 휴식 공간, 편의시설을 확충하면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및 관광 정책’ 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임을 확인한 것이었다
-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낸 용산사 사례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한 우리 고성군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앞으로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통합적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관련 사진

다양한 품목의 시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벤치의자



■ 김원순 의원

- 이번 공무 국외 출장을 떠나면서 마음이 가벼웠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유성 논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출장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다만 타이베이에서의 출장 기간 접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보게 된 타이베이의 도시 운영 방식이 참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첫째,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도시 설계이다.

- 타이베이 시내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보행 환경이었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동일한 높이로 설계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이 편리해 보였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도 보도와 차도를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다.
- 이를 보며 문득 우리 고성군의 보행 환경이 떠올랐다. 고성읍 중심가만 하더라도 높은 턱과 좁은 보도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들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불편함이 있는 곳은 보행로 정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에서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타이베이의 설계 방식을 참고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 또한, 타이베이 도심 곳곳에는 도로 중앙분리대와 보도에 울창한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었다. 단순한 가로수가 아니라 작은 숲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 물론, 인구 249만의 대도시 타이베이와 인구 4만 7천의 고성군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규모는 다르더라도 녹색 공간 조성이라는 방향성은 참고할 만하다.
- 만약, 우리 군이 접목한다면 우리 군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고성읍 중심가 주요 도로부터 소규모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다.

□ 둘째, 세심한 배려가 담긴 도시 운영 시스템이다.

- 거리를 지나다 보니 지역별로 색깔이 다른 우편함이 눈에 띄었다. 우편물 수거와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시민들도 자신이 보내는 우편물의 목적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고성군은 읍·면 간 거리가 상당한 편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타이베이와 구분 배송 시스템은 향후, 우편 관계 기관과 협의 시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보인다.
- 건축 현장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비계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현지 안내에 따르면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안전성과 경제성도 갖춘 전통 방식이라고 한다. 공원의 가로수 주변 화단에는 폐목재와 자갈을 활용해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제초제 대신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관리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군의 공공 공간 관리에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하다.
- 또한, 타이베이 상점가의 건축물들을 보면 도로와 연결한 곳에 일정 폭의 처마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비가 오거나 강한 햇볕이 내리쬐릴 때 보행자들이 처마 아래로 걸을 수 있어 편리하고, 상점 입장에서도 고객의 접근성이 좋아져 영업에 도움이 되는 구조였다. 신규 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설계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면, 보행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셋째, 대중교통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방식이다.

- 타이베이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는 지역 관광지와 특산물을 알리는 래핑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었다. 타이베이101, 국립 고궁박물관 같은 관광지는 물론 야시장, 전통 먹거리 등이 버스 외관에 표현되어,

이동하는 버스 자체가 홍보 수단이 되고 있었다.

- 우리 군도 상족암군립공원과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등 독특한 역사·자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청정 해역의 갯장어와 가리비, 품질 좋은 멸치, 당도 높은 방울토마토와 딸기 등 우수한 특산물도 있다. 군내 버스는 물론 통영시나 사천시를 오가는 노선에 이러한 래핑 디자인을 적용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버스 운영 업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검토해 볼 만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 이번 출장을 통해 깨달은 것은 선진 정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타이베이에서 접한 사례들은 대부분 일상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세심한 배려에서 출발한 것들이었다. 보도의 턱을 낮추고, 우편함을 구분하고, 처마 공간을 만드는 것 등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민 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접근 방식이었다.
- 특히, 타이베이의 도시 정책들이 ‘사람’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개발보다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군에서도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이다.
- 이번 출장에서 접한 내용들은 고성군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 모든 것을 즉시 도입하기보다는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관계 부서 및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군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무 국외 출장에서 얻은 경험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고성군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관련 사진





■ 이정숙 의원

- 타이베이 베이더우 도서관은 대만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명단에 오른 바 있는 명소다.
- 실제로 도서관을 방문해보니, 울창한 수풀지대에 둘러싸인 친환경 목조건축물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임을 실감했다.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숲속에 있는 산장 같은 외관에 자연과 공존하고 있다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 베이더우 도서관은 기존에 경험했던 한국의 도서관과는 확연히 다른 이미지와 분위기였다.
- 단순한 친환경 설계를 넘어, 누구나 쉬고 책을 읽으며 사색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고요하고 아늑한 실내와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곳곳에 마련된 자리들은 주민뿐 아니라 방문객들도 편히 머물 수 있도록 배려된 설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 특히 지하에 위치한 어린이 공간과 스토리텔링 구역은 낮은 책장과 아담한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책을 읽고 상상력을 키우며 도서관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 아이들이 자연 속 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와 머무르는 모습은 우리 지역에 조성될 작은 도서관에도 반영하고 싶은 부분이었다
- 베이더우 도서관의 또 다른 인상 깊은 점은 2006년 개관 당시부터 태양광 집열판과 빗물 재활용 시스템 같은 친환경 기술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 20년 전부터 이러한 기술을 도입했다는 점은 매우 놀라웠으며,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가치를 일찍부터 실천해온 사례라고 생각한다.

- 최근 우리나라도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에너지 관련 정책을 대폭 재정비하며 친환경 건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고성군 역시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앞으로 지어질 공공시설과 건물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 설계 원칙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한다. 특히 베이더우 도서관에서 확인한 자연 친화적 건축자재 사용과 태양광, 빗물 재활용 시스템 같은 기술들은 우리 군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하이초등학교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큰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앞으로 고성군에서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 하이초등학교 작은도서관 사업이 베이더우 도서관과 같은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모범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번 출장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지역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과 환경 조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앞으로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람 중심의 문화 공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 관련 사진



[별지1]

공무국외출장 예산집행 내역

I 총괄

- 승인액: 45,189,440원
- 변경액: 44,712,840원(승인액 대비 △476,660원)
 - (항공료) 환율변동(계획/발권일 차이 △551,600원)
 - (준비금) 체제비 내에서 여행자보험 집행 조정(△225,000원)
 - (통역비) 전문용어 및 수화 통역 필요에 따라 등급 조정(증 300,000원)
 - 계획 280,000원/1인 → 변경 380,000원/1인
- 집행액: 42,600,420원
- 잔액: 2,102,420원
 - 일정 중단에 따른 미집행액 정산 환불(체제비, 버스임차료, 통역비)

II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계획액	변경액 (A)	집행액 (B)	잔액 (C=A-B)	비고
합계	45,189,440	44,712,840	42,600,420	2,102,420	
여비	소계	38,214,440	37,662,840	36,940,420	722,420
	항공료	11,042,800	10,491,200	10,491,200	- 환율 변동
	체제비	27,171,640	27,171,640	26,449,220	722,420 정산 환불
준비금 (여행자보험료)	225,000	-	-	-	체제비 항목 조정
버스임차료	5,710,000	5,710,000	4,710,000	1,000,000	정산 환불
현지통역비	840,000	1,140,000	760,000	380,000	정산 환불
방문기념품	200,000	190,000	190,000	-	

[별지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결과

I 심의개요

- 일 시: 2025. 11. 21.(금) 15:00
- 장 소: 고성군의회 2층 의회운영위원회실
- 내 용: 2025년 고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
- 심사항목: 결과보고서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사

II 심의결과

- 위원 7명 중 4명 참석하여 전원 가결 및 승인

항목	심사항목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적법성	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적법	적법	적법	적법
	1-1 공무국외출장 이후 15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 여부	적법	적법	적법	적법
	1-2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보고 여부	적법	적법	적법	적법
적정성	1. 국외출장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아닌지	적정	적정	적정	적정
	2. 출장경비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아닌지	적정	적정	적정	적정
	3. 출장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적정	적정	적정	적정
	4. 출장 결과 반영 계획의 적정성	적정	적정	적정	적정
	4-1 의정활동에 접목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적정	적정	적정	적정
	4-2 군정 발전에 접목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적정	적정	적정	적정
	5. 선물 수령 여부가 있는지 (있으면 신고하였는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발생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II 종합의견

- 공무국외출장 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역사시설과 주민참여형 복합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과 의회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공무국외연수를 통하여 고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습득과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향후 정책구현을 위한 의미있는 연수로 판단됨
- 결과보고서가 대체적으로 잘 작성되었으며, 정책 제안 등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실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